

굴곡형 비인두 내시경의 과비성 원인 감별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의 유용성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은경* · 추광철 · 백정환 · 손영익

목 적 :

과비성 환자에서 굴곡형 비인두 내시경을 통하여 연인두 sphincter의 구조와 발성 시의 움직임에 직접 관찰함으로써 과비성의 원인 감별과 수술의 여부 및 언어 치료 결정의 근거가 되는지 등의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 하였다. 또한 비인두 내시경 검사의 소견과 비음치 측정 검사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과비성을 호소하는 4세에서 63세까지의 환자 50례를 대상으로 53건의 비인두 내시경 검사가 실시되었다. 굴곡형 비인두 내시경을 후비공 후방에 위치하고 연인두의 연구개 contour를 관찰하여 notch, flat, bulk로 나누었다. 발성 시 연구개, 후인두벽, 좌우 측인두벽이 폐쇄되는 비율로써 연인두 폐쇄 정도를 측정하였고 닫히는 패턴은 circular, coronal, sagittal로 나누었다. Nasometer(Kay 6200, USA)를 이용, 모음 /아/, /이/, /우/를 3초간 지속하게 하여 각각의 비음치를 측정하였다.

결 과 :

연인두의 연구개 contour는 notch가 22건으로 술 전 점막하 구개열과 술 후 구순구개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flat이 11건으로 술 후 점막하 구개열인 경우가 많았으며 bulk 13건은 술 후 점막하 구개열과 편도 비대 등에서 관찰되었다. 연인두의 불완전 폐쇄는 대부분 구개열 관련 환자였으나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 구강 안에서 점막하 구개열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운 occult 점막하 구개열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도 관찰되었다. 닫히는 패턴은 circular와 coronal이 가장 많았다. 모음의 비음치는 연인두 폐쇄 부전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구개의 contour나 닫히는 패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

비인두 내시경 검사는 연인두 폐쇄 부전의 감별 진단에 유용하고 수술 및 언어 치료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비음치가 연인두 폐쇄 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